치솟는 식탁물가… 서민들 한숨 커간다

광주·전남 7월 상승률, 7개월만에 최고

채소값 고공행진에 공공料 줄줄이 올라

광주·전남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물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농축산물, 공공 서비스 요금 등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올라, 수치와는 달리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201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하고 전달보다는 0.2% 올랐다.

전남지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 상승하고 전달보다 0.2%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광주 1.0%, 전남 1.5% 상승률을 각각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광주의 생활물가지수는 큰 폭으로 올라 전년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다. 장마로 인한 채소값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7% 하락, 전달보다 0.1% 상승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생활 곳곳에 잠재적인 물가 인상요인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장마 등 기상악화로 채소류의 가격은 2.2%나 올라 식탁물가의 부담이 더 할 것으로 보이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각각 7.8%와 7.0%씩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도 올라 서민들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은 4.0%, 전기료는 4.2%, 지역난방비는 5.2%나 비싸졌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우유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밥상물가가 또다시 들썩일 것으로 보여 전망은 더욱 어둡다.

우유업체들은 흰 우유 1ℓ 가격을 기존 2350원에서 2600원으로 10.2%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장 우유를 주원료로 한 발효유와 분유, 유제품, 커피, 빵, 아이스크림, 과자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과 비교해 휘발유는 1.7%, 경유는 1.8%씩 가격이 각각 올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월세 4개월 연속 내림세

7월 0.2% 하락…집주인들 선호로 매물 늘어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심화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월세가격이 4개월 연속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7월 8개 시·도 주택 월세가격이 전달보다 0.2% 떨어져 4개월째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은 0.2% 내렸고 지방광역시는 보합이었다. 수도권 월세가격 하락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집주인들이 임대수입을 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인데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형 주택 공급이 늘어난 탓이다. 월세가격은 서울(-0.4%), 경기(-0.1%), 인천(-0.1%) 등이 모두 하락했다. 서울에서 강북권(-0.4%)은 세입자의 전세 선호 현상이 심화해 월세가격이 내려갔고 강남권(-0.4%)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등으로 내렸다. 경기 수원 등과 인천의 월세가격이 내려간 것도 공급 물량 증가 때문이다.

지방광역시 월세가격은 대구(0.2%)와 울산(0.1%)은 혁신도시 입주 예정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부산(-0.2%)과 대전(-0.2%)은 소형 아파트와 신축 원룸 등의 공급으로 약세를 보였고 광주는 보합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0.2%), 아파트(-0.1%), 연립·다세대(-0.2%), 오피스텔(-0.3%) 등 모든 유형의 월세가격이 하락했고 오피스텔은 7개월째 약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

7월 건설 체감경기 두달연속 악화

건설사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어 2개월째 악화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건설 경기실사지수(CBSI)가 62.1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고 1일 밝혔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건설업 체감경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업체 지수는 85.7로 6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으나 중견업체 지수는 50.0으로 전달보다 14.3포인트 급락했고 중소업체 지수는 48.1로 6.9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50을 밑돌았다. 8월 CBSI 전망치는 60.9로 7월보다 12포인트 떨어져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8월에도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인 비수기 여파로 침체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해남산 햇고구마 드세요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 해남산 햇고구마가 선보였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고혈압을 비롯해 성인병을 예방에 좋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건강식품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업무보고·수출전략회의·해외현장경영…

대기업 총수들 휴가 잊은 광폭행보

여름 휴가철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등 휴가철과 상관없이 경영을 챙기고 있다.

어려운 국내외 경영 환경을 돌파할 해법을 찾고, 느슨해지기 쉬운 조직에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려는 경영진들의 '역발상'으로 풀이된다.

해외에 머물다 지난주 귀국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출근경영을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42층의 집무실로 56일만에 출근한 이 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으로부터 하반기 사업 전략과 함께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장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출근으로 그룹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수뇌부는 2~3일 전부터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일부 임원은 휴가 계획을 세웠다가 접고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출근 경영 재개는 특히 최근 반복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휴가 기간인 지난달 29일 출근해 계열사 전 사장단이 참석하는 수출확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 주 공장 가동을 멈추고 생산직 직원 전원이 휴가를 갔다.

임원들도 이때가 휴가철이지만 정 회장은 이에 상관없이 수출전략회의를 연 것이다.

정 회장은 올해 휴가 기간에도 예년처럼 따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매일 출근해 평소처럼 집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만큼 따로 휴가를 가지 않고 평상시처럼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에게 화물사업본부장까지 맡겨 화물 부문의 실적 부진을 타개하려고 애쓰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하며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월례 사장단 회의도 평소대로 여는 등 휴가를 잊은채 업무를 챙기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28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대우인터내셔널 해상 가스전 상업생산 기념식에 참석해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룹 총수가 사법처리 등으로 부재한 SK, 한화, 태광산업은 총수의 빈자리를 대신해 '비상경영'의 키를 넘겨받은 경영진이 휴가를 반납한 채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7월 21만대 판매…작년비 1.7%⬆

기아자동차는 7월 국내 4만1500대, 해외 17만358대(현지조립방식 제외) 등 총 21만1858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었지만 6월과 비교하면 10.6% 감소했다. 내수 판매량은 작년보다 3%, 6월에 비해 10.1%가 각각 늘었다. 수출 실적은 작년보다 1.3% 증가했지만 6월과 비교하면 14.5% 줄었다.

기아차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마케팅 활동과 신차 투입으로 국내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하계휴가와 노조의 특근 거부로 생산량이 감소해 전체 판매는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모닝·카니발·K3 등 주력 차종과 지난 6월 출시한 '더 뉴 K5' 등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K5는 7월 한달간 7479대가 팔렸고 계약 대수도 8000대를 돌파했다. 모닝, 카니발, K3는 각각 7575대, 4285대, 2228대가 팔렸다. 휴가철을 맞아 레저 수요가 늘면서 RV 차량도 1만1675대가 판매됐다. 수출 부문에서는 국내 생산이 8만5250대로 전년보다 3.9%, 전월보다는 11.3% 감소했다. 해외 생산은 8만5108대로 전년보다 7.2% 늘어 국내 생산 감소분을 보충했지만 휴가철 여파로 조업일수가 줄어 전월보다는 17.5% 감소했다.

해외 판매는 K3 2만6763대, 프라이드 2만6742대, 스포티지R 2만5421대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고 K5는 1만7849대로 뒤를 이었다. 또 현지조립방식(CKD)으로 2만4780대를 별도 판매했다. 올해 1~7월 기아차 판매량은 국내 26만7904대, 해외 138만9489대로 총 165만7393대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내수는 4.1% 줄었고 수출은 4.9% 늘어 전체 판매량 실적은 3.3% 증가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2격납고 오픈

아시아나항공이 1일 인천공항 제2격납고를 오픈했다.

2년여간 17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이 격납고는 6만2000㎡ 부지에 연면적은 4만600㎡로 대형 항공기 2대와 중소형 항공기 1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최대 규모의 정비시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형 항공기 1대를 수용하는 제1격납고와 함께 제2격납고를 운영하면 외국에서 항공기를 정비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비 인력 100여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20.74 (+6.71)	549.52 (-4.79)	2.92% (0.00)	1123.50원 (0.00)